

이덕일의 '역사의 창'



12·3 내란과 광복 80주년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쿠데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일으키는 친위쿠데타다. 12·3 내란 이전의 마지막 친위쿠데타는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이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의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총통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했다.

박정희는 "한 번 더 뽑아 달라는 정치 연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연임 제한이 없는 총통이 됨으로써 김대중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다.

박정희는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정치권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당시의 국무회의)가 대신한다"는 이른바 '특별선언'을 선포했다. 국회해산권은 없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이른바 10월 유신은 명백한 내란죄였지만 군대와 경찰이 박정희의 사병(私兵)이었으므로 처벌하지 못했다.

그해 12월 공포한 이른바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유일한 근거로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법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2·3 내란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윤석열과 그 지지세력들의 정신세계가 21세기 대한

민국이 아니라 52년 전 유신 선포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은 박정희·전두환의 아바타이다. 유신과 1979년의 12·12 쿠데타 때는 군대와 경찰들이 박정희·전두환의 사병이었지만 12·3 내란 때는 최고위 장성들과 최고위 경찰들은 윤석열의 사병이었어도 하급 장교나 부사관, 일반 병사들은 아니었다는 점이 달랐다.

12·3 당일 윤석열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쏘더라도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직접 명령했지만 21세기에는 통할 수 없는 철 지난 레코드였다. 만약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획대로 되었으면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우리 사회 또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겠지만 이런 체제가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미스터리는 출마 선언은 마흔 윤봉길 기념관에서 해 놓고 왜 취임 후에는 이만용의 길을 따랐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등 역사와 인문학 관련 국가기관들의 수장을 "일제 때가 좋았다"는 뉴라이프 인사들로 채운데서 그 답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독립지사들의 뜻을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에 광복회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친일인사를 임명했을 정도로

뉴라이프는 곧 윤석열이었다.

12·3 내란사태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K-컬처 붐을 주도하는 문화선진국이다. 그러나 이번 내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 수뇌부는 일제 시대와 군부독재 시대의 향수에 젖어 살면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믿는 지진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간 사회 외곽에서 소외되어 있던 비주류가 아니라 황교안이나 한덕수가 보여주듯이 평생 고위 겸사과 고위 관료로서 우리 사회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주류들이라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결국 문제는 역사관으로 귀결된다.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큰 절을 한 윤상현의 작은 조부 윤중화가 술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고 고문하던 종로경찰서의 유일한 조선인 출신 서장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3 내란사태는 사회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일, 극우라는 암적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1945년 8월 15일, 제거되어야 할 친일매국세력이 미군정, 이승만 정권과 손잡고 거꾸로 독립지사를 숙청한 그릇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새해에 맞는 80주년 광복절이 진정한 광복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의 문을 연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건강한 미소를 위한 구강 위생 관리



김준성 조선대치과병원 보철과 전임의

이 부분에 치태가 쌓여 오래도록 청소가 되지 않으면 단단한 치석으로 변하게 되며, 이후에는 자가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치주질환이 진행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자가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치태가 쌓여 고립되지 않도록 올바른 칫솔질로 흐트러뜨리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우식이란 치주질환 예방 측면에서든 공통이라고 생각한다.

TV를 보고 있노라면 구강 위생 관리 용품에 대한 광고도 많은데, 특히나 여러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치약에 대한 광고가 많다. 치석제거, 미백, 치주질환 특화 치약 등 아무래도 치약이 페이스트 형태의 제품이다 보니 여러 약제의 첨가가 용이하기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 치'약'이라는 이름이 또 한 몫을 하는게 아닐까 싶다.

기능성 치약에 대해 월가월부 할 생각은 없지만 치과 대학 재학 시절 교수님께서 "치약은 약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던 기억이 있고, 이제는 저도 환자들에게 이 말을 가끔씩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저에게 치약과 칫솔질 중 무엇이 더 중요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칫솔질이라고 답하고 싶다. 칫솔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소개해 드릴 칫솔질법은 '바스법(Bass method)'이다.

흔히 칫솔질은 치은쪽에서 치아쪽으로 칫솔을 대고 쓸어내리는 회전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는 치아와 치은의 경계를 청소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바스법은 칫솔을 45도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가깝게 대고 치아 1-2개를 기준으로 아주 짧은 '스트로크(stroke)'의 진동을 주는 칫솔질 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잇몸과 치아 사이의 치태에 용이하게 접근하면서 치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께가 얇은 칫솔모가 뾰뾰하게 들어차 있으면서도 헤드가 작은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칫솔질을 했다면 칫솔질이 끝나고 혀로 치아를 만졌을 때 평소와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치간칫솔도 병행해서 사용하면 더할 나위없다.

바스법의 단점이라면 숙달이 어렵다는 점이다. 치아 1-2개를 10-15초 가량 진동을 주며 닦아줘야 하는데 사람마다 치아 형태, 치열의 구조가 달라 잘 닦이고 덜 닦이는 부위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칫솔을 쥐는 방식, 치아에 대주는 각도 역시 개인이 맞춤형으로 습득해야 한다. 칫솔질에 대해 교육이나 전문가 칫솔질을 받아보고 싶다면 인근 치과나 다니고 있는 치과에 문의하면 된다. 물론 진료수가라는 것이 있어 약간의 비용은 든다.

이 세상 많은 것들에 왕도가 없듯 바스법도 완벽한 구강 관리법은 아니다.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결국 세균이고,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개인이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 구강 위생 관리를 가능한 꼼꼼하게 하면서 정기검진을 위한 치과 내원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올바른 칫솔질법과 정기검진으로 치아를 예쁘게 관리해 보길 바란다.

기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찾은 인생 2막



박응열 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너무 부러웠다. 퇴직하면 무조건 장기여행 가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택한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다양한 산티아고 순례길 중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프랑스길을 걷는다. 프랑스길 800km는 크게 몸의 길, 마음의 길, 영혼의 길로 나뉜다. 걸으면 걸을수록 여행자 모드에서 점차 순례자 모드로 변한다. 처음 10여일은 몸이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다. 발바닥 통증과 근육통, 허리 통증 등이 교대로 찾아온다. 그 이후 '마음의 길'에 들어서면 몸이 적응하면서 걷는 게 익숙해진다. 하루 20-25km씩 걷다가 30km 이상 걸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게 변한다. 20여일 지나 '영혼의 길'에 들어서면 몸도 마음도 텅 빈 상태가 된다.

가볍게 인연들과의 만남은 계속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배운다. 가슴 속 여운들을 내려놓으려 애를 쓰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 몸은 가볍고 모든 욕심은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가볍게 떠난 여행에서 너무도 많은 걸 얻었다. 그 길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떠나기 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내 책을 읽고 산티아고에 가는 사람이 많아질길 바라며 쓴 글이다. 그 책을 읽은 아내의 요청으로 2023년 2월 두 번째 까미노에 올랐다. 아내와의 까미노는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800km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으니 이보다 값진 성과가 어디 있었는가.

'산티아고 스킨'을 운영하고 후배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지난 한해를 보냈다.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한 이후 수강생이 부쩍 늘었다. 4번의 강좌 동안 127명이 수료했다. 멀리 강원도 강릉, 경기도 남양주, 충남 아산과 경남 진주에서도 오실 만큼 관심이 많다. 수료자 중 1946년생 어르신인 프랑스길을 완주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도권에서도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지인들이 많다. 내년에는 광주와 서울 쪽에서 동시에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3-4월 주중반과 주말반을 각각 한번씩 운영할 예정이다. 강좌가 끝나면 4월말 세 번째 까미노에 오른다. 강좌 수료자 중 동행해서 가달라는 요청이 많다. 각자 출발하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형식이라 동행팀이라 부르고 있다.

프랑스길을 걸은 후 일행은 귀국하고 나는 북쪽길로 간다. 2023년 부상으로 완주하지 못한 나머지를 걷는다. 컨디션에 따라 포르투갈길 등을 더 걸을 계획이다. 산티아고 4대 루트는 모두 걸으려 한다. 이렇게 나의 까미노는 이어진다.

퇴직 후 산악초와 관련된 일을 하려던 원래 계획은 후순위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단순하게 떠난 순례길이 인생 2막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산티아고와 관련된 책을 내고 강의를 하면서 지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런 게 운명인가보다. 까미노와의 인연은 이제 나의 속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열정이 살아있는 한 나의 까미노는 계속될 것이다.

社說

슬픔과 혼란 딛고 일상 회복하는 한 해 되길

충격과 분노, 슬픔과 비탄 속에 새해를 맞았다. 돌아보면 갑진년은 다사다난이 란 말이 이보다 더 실감날 수 없는 한 해였다. 특히 12월은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을 안은 채 새해를 보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받은 충격과 슬픔은 비통함을 넘어 집단적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해맞이 대신 제주항공 참사 현장 무안공항은 물론 광주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참사 현장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추모객들이 국화 꽃을 헌화하고 직접 쓴 편지를 철조망에 붙이며 고인을 추모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나눔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12·3 내란사태와 제주항공 참사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민들도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길 기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새해를 맞는다. 따라서 올사년인 올해는 무엇보다도 슬픔과 혼란을 딛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무안공항 시설 안전화 계기로

그러기 위해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고 유족들을 보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 책임을 물을 곳이었다면 광주는 내국 유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사를 빚은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의 개선, 오버런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등 무안공항 시설 개선의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무안공항은 당분간 참사 현장이라는 분이 아닌 골때를 쓰겠지만 환급결제 등을 통해 전남 서민권 거점공항이라는 개황 취지에 맞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사가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자는 지

난해 이전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가쓰로 국방부 주관의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렸다. 이참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로 확대해 공항 이전 문제도 매듭짓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 매듭, 불확실성 제거

국가적으로는 탄핵 정국을 조기에 매듭 짓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출발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을 위해 가장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2명인데 그쳤는데 빠른 시일내 나머지 1명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다.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이면서도 비겁하게 수사를 회피하고 탄핵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뚝뚝하게 국민 앞에 나서 심판을 임해야 한다. 일부 극우 소수층만 바라보고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인데 탄핵심판을 서둘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

광주시·전남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골목경제 살리기 등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확장 재정과 조기 추경으로 돈이 들게 해서 소비의 그릇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 현안 가운데 광주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를 복합소핑몰 구축과 충돌 없이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남은 목포대·순천대 통합으로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 기반을 마련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 좌초 위기에 어떻게 의대 증원을 확보할지가 과제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은 허물을 벗고 새로 시작하는 변화의 해가 되어야 한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혼란과 슬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으자.

無等鼓

언뜻 혼돈 같다.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하려다 실패해 탄핵으로 직구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신 없는'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나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를 틈타 '극우'의 탈을 쓴 세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권력,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이들의 총체적 저항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37년 동안 대통령 3명이 탄핵 심판대에 오

를 만들 정치 권력은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인용, 마지막은 아직 알지 못한다. 지난 2017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국민의 촛불이 7년만에 야광 불이 되어 다시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고 있다. 그 외에는 대통령들이 선택을 받고, 그들은 왜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주변 비선에 넘겨주고, 군대를 동원해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하였던가.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은 기득권 세력이 주류가 되면, 그토록 억척스럽게 쌓아

왔던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계한다. 그들은 사실 평범한 시민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공감한 적도, 이해하려고 한 적도 없는 특권층이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체를 소중히 할 리 없다. 오로지 자신 또는 패거리 위한 정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슬픔에 잠긴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등 대형 참사를 반복해 겪고 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이었던 이들

이 아무런 잘못 없이 떠나갔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곁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치를 떤다. 아마도 압축해서,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해온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지긋지긋한 저항을 끝내고, 진정한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는 것이다. 2025년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